

현장민원 소통행정 현장봉사 →

↓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 이동빨래방



소외계층 가정 대상 올해 120회 운영

남원시가 120만원봉사대의 활동을 통해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남원시는 오는 18일부터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외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120만원봉사대 '찾아가는 현장민원'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120만원봉사대의 '찾아가는 현장민원' 활동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긍정적 호응과 수요를 반영해 올해 120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120만원봉사대 운영 계획

민간인과 공무원 10여명으로 구성된 120만원봉사대는 매주 3회(화·수·목요일) 읍면동 오지마을을 찾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세대 가정을 방문해 전기, 가스, 상하수도, 가스, 보일러, 농기계 점검 수리 및 이미용 봉사, 이동빨래방, 복지상담 등 시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동빨래서비스는 무거운 이동빨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살균과 원단 보호기능을 갖춘 빨래차량이 빨래감수거, 세탁, 건조 후 전달해 드리는 체계로 운영되며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가 있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각 가정을 방문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의 수리 상담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활동시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한 주택가꿈(家dream) 서비스도 함께 운영, 타 지역에서 남원시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전입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전기, 수도, 가스 안전점검 등을 정비해 귀농귀촌인의 안정된 정주환경

읍면동 오지마을 찾아 생활 속 불편사항 점검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주택가꿈' 서비스 운영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인구늘리기 효과가 예상된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기여

120만원봉사대는 평상시 생활민원 현장투어를 추진해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한다.

특히 공공 이용시설과 재래시장,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오는 2월 10일까지 설맞이 특별점검 투어를 실시하게 되며, 도로, 교통시설물, 불법 광고물, 쓰레기 불법투기 등 생활환경과 주민편의 전반을 살피게 된다.

또한, 자전거투어로 주거 밀집지역과 교통 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위험물, 불법광고물 등 즉각적인 조치로 깨끗하고 안전한 도

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살핌 행정 추진

120만원봉사대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 드리는 살핌 행정을 추진한다.

읍면동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120만원 접수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여 싱크대 소수선, 출입문, 전등 교체 등 다양한 생활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120만원봉사대를 통해 찾아가는 현장민원 95회(마을) 559세대 4,584건(전기·가스 1,996, 이미용 755, 이동빨래 637, 농기계 583, 기타 613)과 120전화 생활민원 503건 및 생활현장투어 742회 1,245건을 해결했다.

류홍성 시민소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책임지는 자세로 120만원봉사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현장중심의 적극행정과 친절한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며,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는 취약계층을 발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농기계수리



↑ 생활민원 처리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